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행복한 진짓상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상기)는 지난 27일 제주시 삼양동 인근 농어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 '행복한 진짓상'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행복한 진짓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제주지역본부 직원들이 매주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고물품 나눔행사 '탐나는 마켓'의 판매수익금으로 구입한 쌀과 도시락을 함께 전달했다.